

조선시대 문헌에 나타난 제주도 동물의 통시적 연구*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탐라지》,
《남환박물》, 《제주계록》을 중심으로

정종우**·정소연***

- I. 서론
- II. 연구대상 선정 및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탐라지》, 《남환박물》, 《제주계록》의 동물 현황
- III. 문헌상에 나타난 제주 동물상의 변천
- IV. 결론

국문요약

본고는 제주도라는 지역을 대상으로 조선시대 5백년간 공적 관심으로 이루어진 문헌을 기준으로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탐라지》, 《남환박물》, 《제주계록》을 세기별로 대표문헌으로 선정해 이 문헌을 중심으로 동물의 현황을 통시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전통문헌을 대상으로 제주도 지역의 동물 현황을 정리하고 현재의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동물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15세기에서 19세기에 이르는 문헌 속에는 제주에서 발견되는 4문 11강

* 본 연구는 2015년 국립생물자원관의 '전통문헌 생물지식 조사 연구'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주저자, 이화여자대학교 과학교육과 교수.

*** 교신저자,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60종의 동물이 기록되어 있었다.

둘째, 조선 전기에서 후기로 갈수록 기록되는 동물 종의 수는 증가하는 편이었다. 전기에는 식용 등의 직접적인 활용도에서 후기에는 조류 등 더 넓은 관심사로 동물을 기록 대상으로 삼는 관점의 변화를 볼 수 있었다.

셋째, 전복, 갈치, 고등어, 말 등 지금도 특산물로 유명한 몇몇 동물은 15세기 이후 문헌에 가장 많은 빈도수로 나타나 제주 특산물의 장기지속적인 흐름을 볼 수 있었다.

넷째, 현재 국내에 없는 앵무조개와 해달, 악어, 미륵 등에 관한 기록은 이 종들의 분포에 관한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어서 기후, 생태 환경의 변화 및 외국과의 교류 등 다양한 원인의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다섯째, 지금 사용되지 않는 동물 명칭을 통해 과학사적 관점에서의 전통문헌에 대한 연구는 국어사적 관점에서 과학 용어의 면밀한 검토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여섯째, 그간 문학이나 역사, 지리 등 인문사회 분야 연구에서 다루어진 전통문헌을 통해 과학사적으로 새롭게 접근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또한 제주 지역의 전통 생물 지식의 구축을 위해 문헌에 기초한 기반연구로서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향후 더 구체적인 연구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제주, 동물, 포유류, 어류, 조류, 과학사, 전통문헌, 생물지식.

I. 서론

본고는 15세기에서 19세기까지 조선시대의 문헌에 나타난 제주도의 동물 현황을 개관하고 그 시대적 양상에 따른 특징을 살펴본 연구이다. 그간 제주도 지역에 대한 관심은 사회사적 관심이나 특산물 일부, 혹은 신화 등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주 지역의 통시적 생물 변천사에 대해서는 거의 주목되지 않았다. 산과 바다가 모두 있으면서도 지역적 특색으로 인해 특산물에 대한 조명이 강할 것 같지만 현재적 관심 정도에 그치고 제주 지역의 생물의 사적 변천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가 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나고야 의정서 발효로 인해 각국의 생물 자원 현황과 이익은 밀접한 관계에 있고, 예상되는 분쟁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 전통 문헌에 자생하는 생물의 지속성과 현황 등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특히 제주도 지역은 주변국과의 관계에 있어 생물 자원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존재해왔는지 민감하게 다뤄질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육지와 다른 바다이고, 특히 다른 나라와의 경계와 가까운 지역 중 하나로서 생물의 이동과 변화의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이러한 정치적 배경 외에도, 우리 고문헌에 나타난 전통 생물의 현황이라는 기본적인 부분도 아직 충분히 연구가 되지 않아 연구사적 필요성도 크다. 현재의 제주도 지역 동물에 대해서는 소, 말, 돼지 등 적극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지만 전통문헌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많지 않아서 연구가 필요하다. 전통문헌을 대상으로 한 연구 대부분이 역사학이나 사회학 등에 집중되고 있어서 과학사적 관점에서 전통문헌에 나타난 생물지식에 대한 연구가 요청된다.

특히 제주도 지역은 전통문헌에서 특정 하나의 지역으로서는 시기별로 지속적인 기록이 남아있다. 고대나 중세 어느 시기보다 지금과 가까운 바로 직전의 왕조인 조선시대 15세기에서 19세기까지 지속적으로 긴 시간동안 관심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간 생물지식과 관련해서는 왕에게 진상(進上), 혹은 수취(收取) 제도와 관련해서 개괄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왔고(박찬식, 1996 ; 장삼미신, 2003 ; 양진석, 2004 ; 이욱, 2008), 전통시대에 제주 지역에는 어떤 동물이 있었는지, 현재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그 지속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밝혀진 바가 없다.

또 식물의 경우에는 구술조사의 결과도 논의가 되고 있는 반면에(양영환 외, 2005 ; 강창훈 외, 2008 ; 송관필 외, 2012 ; 김현준 외, 2015) 동물의 경우에는 이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아 전통문헌의 동물 지식 및 그 현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식물의 경우에는 약용으로 인해 전통시대의 식물지식에 중요하게 다루어진 반면에(김선근, 1981) 동물의 경우에는 이마저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제주도라는 지역을 고정된 연구대상으로 하고 조선시대에 어떤 문헌들이 있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례로, 흑산도의 경우에는 특정

지역의 동물, 특히 어류를 집중적으로 살펴본 <자산어보>같은 문헌도 있지만, 제주도의 경우에는 이 지역을 과학적 관심으로 동물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문헌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편이다.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정학적 관심이 더 큰 지역이라는 점에서 과학으로서의 생물분포보다는 다른 차원의 관심이 더 컸던 탓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제주 지역의 생물 상(相)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관심의 목적은 아니라 할지라도 현재적 관점에서 다시 과거의 제주 지역의 동물을 다룬 문헌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제주도라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면서 생물에 대해, 특히 동물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한 문헌을 보면 국가나 읍 등의 공적 관심에서 이루어진 문헌들이 두드러진다.

조선전기에는 《세종실록지리지》나 《신증동국여지승람》과 같은 국가 단위의 지리서와 같은 문헌에서 제주도의 동물을 많이 다루고 있고, 조선후기에는 개인이지만 관리로서 파견되어 기록한 문헌인 《탐라지》, 《남환박물》, 《제주계록》 등이 눈에 띈다. 본고에서는 전술한 바, 제주 지역의 전통시대의 동물의 현황이 현재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 지 통시적 관점에서 논의를 하고자 시대 흐름에 따라 세기별로 대표적인 문헌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제주도라는 고정된 지역을 염두하면서 해당 시대에 동물을 많이 다루고 있는 문헌을 찾았다. 일례로 18세기에는 《제주읍지》가 관찬서로서 다른 문헌과 같지만, 《남환박물》에 더 많은 동물종이 등장하므로 이런 경우에는 《남환박물》을 택하였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논의는 II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본고의 논의순서는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15세기에서 19세기까지 제주도 동물의 통시적 흐름을 볼 수 있는 문헌을 선정하는 과정을 검토하고, 선정된 조선시대 5개 문헌에 나타난 동물의 현황을 개관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구체적인 특징에 대해 하위 항목으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한다. 4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II. 연구대상 선정 및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탐라지》, 《남환박물》, 《제주계록》의 동물 현황

1. 연구대상 선정

본고에서는 15세기에서 19세기까지의 조선시대 전통 문헌 중에서 관찬서이면서 제주도의 동물에 대해 가장 많은 종을 신고 있는 문헌을 세기별로 대표문헌으로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여러 후보문헌들이 있었다. 조선전기에는 개인적인 관심으로 제주에 대한 생물을 기록한 경우가 거의 없어서 《세종실록지리지》나 《신증동국여지승람》과 같은 관찬서가 독보적인 대표문헌의 자리를 차지하는 반면에 조선후기에는 개인적인 관심이나 유배 등의 이유로 사찬서에도 제주 관련 기록이 적지 않다. 그러나 관찬서가 조직적으로 해당 지역의 관원들이 직접 조사한 읍지를 바탕으로 기록된 반면에 사찬서들은 말 그대로 유배기간 동안 개인적 경험에 기반해 관심사와 직결한 기록들에 치우쳐 있다. 본고에서는 동일한 성격의 문헌이라는 기준을 15세기에서 19세기까지 적용하기 위해서 조선 전기에 사찬서는 보기 드물고 관찬서 위주의 문헌들 위주로 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삼았다.

한 예로, 16세기 김정희의 《제주풍토록》은 1년간의 유배기록으로서 동물 24종이 나오고, 제주에 없거나 매우 드물다고 한 12종의 동물이 더 기록되어 《신증동국여지승람》보다는 동물 종수가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동물이 두 문헌이 같은 부분이 많고, 같은 기준의 유배 기록으로서 15세기에서 19세기의 문헌들이 모두 있지 않아서 별도의 연구에서 다룰 만한 문헌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다만 지네, 파리, 모기, 지렁이, 개미 등 관찬 지리서에서 관심을 두지 않는 동물들이 많다는 점에서 향후 연구가 필요한 문헌이다.

또 다른 사례로, 《제주읍지》는 18세기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어 관찬서라는 공통된 기준에는 적합하다. 그러나 그 수록 동물종수가 《신증동국여지승람》이나 《탐라지》와 대동소이하여 제주도 동물의 통시적 흐름을 보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같은 시대에

더 많은 동물을 수록하고 있으면서도 제주 목사로서의 관인(官人)의 위치에서 쓴 《남환박물》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물론 개인적 관심이 함께 작용했겠지만 관인으로서 집필한 관찬적 성격을 충족하면서도 제주도 지역의 동물이 통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기에는 더 적합하다고 보았다.

또한, 19세기 이강희의 《탐라직방설》의 경우 순수한 연구의 목적으로 쓰여졌다는 점에서, 그리고 19세기 제주 문화와 역사의 새로운 사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되지만 과학사적 관점에서는 그 대상으로 삼기가 어렵다. 17세기의 《탐라지》를 참고하여 문헌 선후 간의 관련면에서는 다를 만하나 실제로 이강희가 제주에는 전혀 가보지 않고 들은 내용을 적었다는 점에서, 또한 등장 동물수가 9종에 불과해서 다루지 않는다. 이렇게 전통문헌 중에서 과학적으로도 의미가 있으며 직접 조사한 동물 종을 기록하고 있으며 관찬서라는 같은 성격의 문헌을 세기별로 대표문헌을 선정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 조선시대 세기별 제주 지역의 동물 수록 문헌들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문헌명	세종실록 지리지	신증 동국여지승람	탐라지	남환박물	제주계록
저자	맹사성(孟思誠) 권진(權軫) 윤희(尹淮) 신장(申樞) 등	이행(李衍) 윤은보(尹殷輔) 신공제(申公濟) 홍언필(洪彦弼) 이사균(李思鈞) 등	이원진	이형상	제주목 관원
집필시기	1454년 완성	1530년 완성	1653년	1704년	1846-1884년
집필배경(성격)	관찬지리지	관찬지리지	읍지	지리지	조정 보고문
동물 수록종수	5	20	24	47	7

위의 문헌들의 공통점은 국가적 단위에서, 혹은 행정 관료의 입장에서 이루어진 것들이라는 점이다. 한 개인의 관심사나 유배 등의 특정 상황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 대한 기록을 시도할 수 있지만, 같은 기준으로 통시적 연구를 할 만큼의 시대별 문헌이 고루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본고

에서는 우선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문헌이라는 같은 기준으로 시대적 문헌을 선정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또한 위 문헌들은 서로 간에 참고문헌의 관계에 있다는 점도 공통적이다. 문헌 간의 상호관계가 밀접한 문헌을 통시적으로 추적함으로써 어떤 동물들이 더해지고 빠졌는지에 대한 추이를 보기에 용기하다는 점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이다.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을 공통점으로 가지면서 각 세기별로 동물 종수가 가장 많은 문헌을 각 세기의 대표적 문헌으로 선정한 것이다. 이 문헌들에 대해 조금 더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5세기의 《세종실록지리지》는 조선왕조실록 중 ‘세종실록’ 중에서 제148권에서 제155권에 실려 있는 전국지리지 중 제주도 관련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국 고을에 명을 내려 당시의 실제 상황을 조사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팔도지리지>를 참고하며 더 상밀하게 저술한 것이다. 조선시대 가장 이른 시기의 제주도 동물 현황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정하였다.

16세기의 《신증동국여지승람》은 <팔도지리지>와 <동국여지승람>을 참고하여 새롭게 편찬한 것으로서 권 33-40의 전라도 지역편에 제주도에 대한 기록이 있어서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렇게 조선전기에는 국가에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편찬한 문헌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17세기의 《탐라지》는 앞의 두 문헌과 달리 제주 목사로 부임했던 이원진이라는 개인에 의해 제주도 지역을 집중적으로 기록한 저서로서, 《동국여지승람》 및 김정(金淨)의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을 참고하고 도내 상황과 시문을 수집하여 만든 읍지이다. 이 책은 현전하는 제주도의 가장 오랜 읍지로서 이후 제주도에 관한 문헌들의 저본이 되고 있어서 이 시대를 대표할 만한 위치에 있어 선정하였다.

18세기의 《남환박물》은 이형상이 제주 목사로 부임할 때에 순력하며 직접 체험하고 들은 내용을 실고 《동국여지승람》, 임제의 《소송》, 김정의 《제주풍토록》, 김상헌의 《남사록》, 최부의 《표해록》, 마테오리치의 《지도》 등을 참고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여 보다 풍성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제주도 중에서 서귀포시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서 다른 문헌에 비해 기록의 대상이 좁은 편이나 상대적으로 수록하고 있는 동물 종수는 더 많아서 주목되는 문헌이다.

19세기의 《제주계록》은 1846년 2월에서 1884년 10월 사이 제주목에서 조정에 보고한 계문을 비변사(의정부)에서 옮겨 기록한 자료집이다. 이 시대 지리지를 살펴보는 방법도 있지만, 앞의 문헌들과 같이 중앙이나 관원의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기록한 문헌이라는 성격이 같으면서 해당 시기의 가장 긴 시간동안 지속적으로 제주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서 선정하였다.

2.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탐라지》, 《남환박물》, 《제주계록》의 동물 현황

앞에서 선정한 5개 문헌의 시대적 흐름과 동물 종의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탐라지》, 《남환박물》, 《제주계록》의 동물 분포 현황 비교표

	15c 세종실록 지리지	16c 신증동국 여지승람	17c 탐라지	18c 남환박물	19c 제주계록	합계
〈절지동물문〉						
게[蟹]		1		1		2
메뚜기[蝗虫]					1	1
벌[白蟻]			1	1		1
〈연체동물문〉						
굴조개[牡蠣]				1		1
낙지[絡蹄]				1		1
모시조개[黃蛤]		1	1			2
문어[文魚]		1	1	1		3
백합[白蛤]				1		1
소라[螺]		1				1
앵무조개[鸚鵡螺]		1	1	1		3
오징어[烏賊魚]	1	1	1	1		4
전복[全鮑]	1	1	1	1	1	5
조개[貝]		1	1			2

진주조개(蠔)				1		1
홍합(紅蛤)				1		1
〈극피동물문〉						
해삼(海參)				1		1
〈척삭동물문 연골어강〉						
상어(鯨魚)		1	1	1		3
〈척삭동물문 경골어강〉						
갈치[刀魚]		1	1	1		3
고등어[古刀魚]		1	1	1		3
날치[飛魚]				1		1
멸치[行魚]		1	1	1		3
방어(魴魚)				1		1
송어[秀魚]				1		1
옥돔[玉頭魚]	1	1	1	1		4
옹어[望魚]			1	1		2
은어[銀口魚]		1	1	1		3
전어(鱣魚)				1		1
〈척삭동물문 파충강〉						
바다거북(玳瑁)	1	1	1	1		3
악어(鰐魚)				1		1
〈척삭동물문 조강〉						
갈매기[鷗]				1		1
기러기[雁]				1		1
까마귀[烏]				1		1
꿩[雉]				1		1
닭(鷄)					1	1
두견새[鶴]				1		1
두루미[鶴]				1		1
매[鷹]				1		1
백로[鷺]				1		1
부엉이[鴞]				1		1
솔개[鳶]				1		1
오리[生鴨]					1	1
앵무새[鸚]				1		1
올빼미[梟]				1		1
제비[燕]				1		1

참새[雀]				1		1
〈적삭동물문 포유강〉						
고라니[鹿]			1			1
고래[鯨魚]				1		1
노루[獐]			1			1
돼지[豬]			1	1		2
말[馬]	1	1	1	1	1	5
미록[麋鹿]		1				1
바다사자[可之]			1			1
사슴[鹿]	1	1	1	1		4
삿[狸]			1	1		2
소[牛]			1		1	2
수달[水獺]				1		1
양[羊]					1	1
오소리[貓地獺]		1	1	1		3
족제비[香鼠]			1			1
쥐[鼠]				1		1
해달[海獺]		1	1	1		3
합계	6	20	26	48	7	

위 표의 목록에서 동물 종명은 문헌에 나온 한자를 살리되, 해당 동물의 현재 명칭을 고려해 기입한 것이다. 한자어의 발음과 한글 명칭이 일치하는 것들보다는 한자를 순우리말로 바꾸어 현재 부르는 명칭들이 더 많다. 특히 지금은 사용되지 않거나 우리나라에 분포하지 않는 동물도 있어서 주목을 끈다. 나아가 뒷 시기로 갈수록 관심의 대상이 되는 동물종수가 많아지고 있는 점도 특징이다. 이에 대한 세세한 분석은 장을 달리해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Ⅲ. 문헌상에 나타난 제주 동물상의 변천

1. 현대분류체계로 본 제주 생물상

15세기에서 19세기에 이르는 제주의 생물에 관한 문헌들에서 나타나

는 현재의 분류체계로 총 4문 11장 60종의 동물이 기록되어 있다. 15세기 문헌인 《세종실록지리》에는 2문 5장 6종, 16세기 문헌인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3문 8장 20종, 17세기 문헌인 《탐라지》에는 3문 8장 26종, 18세기 문헌인 《남환박물》에는 4문 11장 48종, 19세기 문헌인 《제주계록》에는 3문 4장 7종의 동물이 나타난다.

비록 이 문헌들의 세부 기록 목적은 조금씩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조선 후반으로 갈수록 기록되는 종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남환박물》은 가장 많은 동물 종이 수록되어 돋보인다. 각 문헌에 나타나는 분류군별 동물 종수는 다음과 같다.

〈표 3〉 분류군별 동물 종수 현황 비교

	15c (세종실록 지리지)	16c (신증동국 여지승람)	17c (탐라지)	18c (남환박물)	19c (제주계록)
절지동물문		1	1	2	1
연체동물문	2	7	6	9	1
극피동물문				1	
척삭동물문					
연골어강		1	1	1	
경골어강	1	5	6	10	
파충강	1	1	1	2	
조강				14	2
포유강	2	5	11	9	3
합계	6	20	26	48	7

《남환박물》이 다른 문헌과 특별히 구분되는 점은 조류에 관한 기록이 풍부하다는 것이다. 조류에 관한 기록은 《남환박물》과 그 이후에 기록된 《탐라지》에만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전의 문헌에서는 전무하다. 이전의 관찬지리지에서는 그다지 유용하지 않아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조류가 이후의 기록에 상세하게 기록된 것은 제주 목사인 이형상의 관심사도 크지만 17세기 문헌 《탐라지》까지 고려한다면 조선 중, 후기에 조류에 관한 관심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제주의 동물에 관한 기록에서 유용하게 이용되는 동물인

연체류, 어류와 포유류는 거의 모든 문헌에서 확인된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연체류 2종, 어류 1종, 파충류 1종, 포유류 2종이,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절지류 1종, 연체류 7종, 어류 6종, 파충류 1종, 포유류 5종이, 《탐라지》에는 절지류 1종, 연체류 6종, 어류 7종, 파충류 1종, 포유류 11종이, 《남환박물》에는 절지류 2종, 연체류 9종, 극피류 1종, 어류 11종, 파충류 2종, 포유류 9종이, 《제주계록》에는 절지류 1종, 연체류 1종, 포유류 3종이 기록되어 있다.

어류, 연체류, 포유류에서 공통적으로 출현하는 동물 종은 오늘날에도 제주의 특산물로 유명한 것들이다. 어류에서는 옥돔, 연체류에서는 전복과 오징어, 포유류에서는 말과 사슴이 거의 모든 문헌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동물은 조선 전기부터 후기까지 제주를 대표하는 특산물로 특별한 관심을 받아왔다고 생각할 수 있다.

2. 주목되는 동물들

2.1. 앵무조개

앵무조개는 화려한 외양과 아름다운 기하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예로부터 장식품으로 큰 인기를 얻어왔으며 종종 시와 그림과 같은 문학과 예술의 소재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앵무조개가 《신증동국여지승람》, 《탐라지》, 《남환박물》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이 동물은 현재 국내에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앵무조개 중 가장 대표적인 종인 *Nautilus pompilis*는 서태평양에 걸쳐 널리 분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앵무조개의 분포지는 필리핀 북부이다. 당시 제주에서 이 종을 관찰할 수 있었던 것은 표류되어온 앵무조개 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앵무조개는 패각 내에 공기로 된 방을 가지고 있어서 무거운 패각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물속에서 떠다닐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살아있거나 죽은 앵무조개들이 해류를 타고 표류하여 원분포지로부터 매우 먼 곳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표류되어온 앵무조개를 잡아서 사육했다는 보고가 있다(Tanabe and Hamada, 1978). 따라서 제주에서도 해류에 의해 표류된 앵무조개를 관찰했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남획에 의해 앵무조개의 개체수가 현지에서 급감하고

있으므로 오늘날 제주도에서 종을 관찰하는 것이 어려워진 것이라고 보인다.

2.2. 해달

해달(*Enhydra lutris*) 역시 현재 국내에서는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신증동국여지승람》, 《탐라지》, 《남환박물》에서 이 종이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일례로 <남환박물>에는 “큰화탈섬과 작은화탈섬에서 난다.”라고 언급되어 있다. 과거의 기록에 따르면 해달은 일본 홋카이도 북부에서부터 사할린, 쿠릴열도, 캄차카반도, 알류산 열도, 알래스카 남부를 따라 멕시코 서부 해안에까지 북부 태평양의 연안을 따라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지나친 포획으로 인해 현재에는 쿠릴열도와 알류산열도, 알래스카 남부, 미국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에만 분포하고 있다.

해달의 경우 생활반경이 1km 내외로 매우 좁아서 앵무조개처럼 표류해서 제주도에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제주도에 관한 문헌에서 해달이 빈번하게 기록되었던 이유로 다음의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다른 동물을 해달로 착각했을 경우이다. 물개와 해달은 서식 환경도 겹치고 하는 행동도 유사해 이 둘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자산어보》와 같은 문헌에서도 물개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다른 동물을 해달로 착각할 가능성은 낮다.

두 번째로 과거에 제주도에 해달이 서식하였을 가능성이다. 위에 언급된 해달의 분포는 현재에는 남획으로 인해 멸종위기를 맞이하고 있어서 분포 지역이 축소되어 있지만, 이 기록들이 사실이라면 서태평양 연안에서 해달의 남방 분포 한계선은 제주가 될 것이다. 향후 해달의 기록에 관한 과거 문헌의 연구는 생물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2.3. 악어

악어의 존재는 《남환박물》에 “명월(明月) 등지에서 많이 난다. 흑사람을 해치기도 한다.”라고 언급되어 있다. 명월은 비양도 혹은 비양도 인근의 지명으로 생각된다. 제주 근해에서 악어가 많이 난다고 표현한

것으로 판단할 때 이 생물이 대규모로 서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언급된 악어가 우리가 현대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악어 인지는 불분명해 보인다. 실제 악어는 체온 문제로 인해 열대의 강과 바다에서만 서식할 수 있다. 비록 제주의 바다가 온난하기는 하지만 겨울이 있기 때문에 악어가 대규모로 서식할 수 있는 곳은 아니다. 그렇다고 앵무조개처럼 해류를 타고 수천 킬로미터를 표류할 수 있는 동물도 역시 아니다. 이 문헌에 언급된 기술이 너무 부족하여 어떤 동물을 지칭하는지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남환박물》에 언급된 악어라는 동물은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바다 동물 정도로 추측된다. 이 악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악어라는 명칭이 언급된 고문헌의 기록과 현재 제주 근해의 동물상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2.4. 기타

위에서 언급된 동물 외에도 실체가 불분명한 종들이 본 연구 대상 문헌들에서 언급되고 있다. 미록, 빈주, 지달 등 현재에도 잘 사용하지 않는 명칭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것인지 의심되거나 구체적인 실물이 현재의 어떤 동물에 해당되는지 확정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등장하지는 않고 특정 시기의 특정 문헌에만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다.

우선, 《신증동국여지승람》에만 등장하는 ‘미록(麋鹿)’은 그 명칭으로 볼 때 오늘날 실질적으로 절멸한 사불상(*Elaphurus davidianus*)으로 생각된다. 오늘날 연구에 따르면 이 종은 중국에서만 분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으로, ‘빈주(蠨蛛)’는 《남환박물》에서 관련 설명은 없고 이름만 언급되어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를 진주조개(*Pinctada fucata*)로 판단하였다.

생물종에 관한 상세한 기록이 없는 고문헌만으로 제주에 서식했던 생물을 정확하게 동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해당 생물 명칭이 언급되어 있으며 상세하게 기록한 동시대의 다른 문헌들을 조사 연구함으로써 이들 생물의 실체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인다. 본고의 연구 대상인 제주에 관한 고문헌에 기록된 정확한 생물

종에 대해 알 수 있다면 당시 제주의 환경을 비교적 정확하게 추측할 수 있으며 생물학적으로도 의미 있는 결과를 얻으리라 생각한다.

3. 과학적 관심사로서의 동물 종수 기록의 확대 경향

본고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은 5종의 문헌이 후시대로 갈수록 동물종수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물론 기계적으로 늘기만 하지는 않고 19세기 문헌은 다시 줄어들지만, 그 앞 시기까지는 조선 후기로 갈수록 동물의 수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이러한 통시적 변화의 흐름이 시사하는 바 역시 있다고 본다. 물론 본고에서 연구된 문헌들이 각 시대별로 완벽한 동물 기록을 포함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서 당시 생물학적 환경을 추정한다든지 시대에 따른 환경의 변화를 정확히 알아내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이 문헌들이 공적 관심사에서 제주의 지리와 산물을 기록한 동일한 성격의 문헌이기 때문에 각 시대에 따라 생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조선 전기에는 어류, 연체류, 포유류와 같이 식용이나 약용으로 직접 활용되는 동물에 관한 기록이 주를 이루는 편이다. 이에 비해 조선 후기로 가면 조류와 같이 효용도가 낮은 생물에도 깊은 관심을 나타내는 경향을 보인다. 곧 직접적인 활용도만이 아니라 동물 전반에 대한 확장된 범위로 관심사가 넓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근대 이후 과학의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지는 흐름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확장된 시야는 제주의 특성에 대한 인식과도 연결된다. 일례로 18세기의 <남환박물>에는 “까치는 없다”는 기록이 있어서 주목된다. 있지도 않은 조류의 한 종에 대해서 없다는 점을 기록한다는 것은 육지에 대한 비교의식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제주의 특성에 대한 인식이라고 볼 수도 있다. 곧 육지에는 흔한 조류의 특정 종이 제주에는 없다는 점을 통해 제주의 조류, 더 넓게는 제주 특유의 동물상(相)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점이 더 적극적인 과학적 관심으로서의 접근이 아니라 점의 과학사적 입장에서 제주와 관련한 전통문헌에 접근하는 본고로서는 매우 아쉬운 점이다.

IV. 결론

지금까지 본고는 제주도라는 지역을 대상으로 조선시대 5백년간 공적 관심으로 이루어진 문헌을 시대별로 대표문헌을 선정해 동물의 현황을 통시적으로 살펴보았다. 문헌의 성격이 애초에 동물상에 대한 기록이거나 과학사적 관심의 결과물이 아니라서 그간 연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착안해, 또한 전통 생물 지식에 대한 현재적 관심에서 본 연구의 출발점을 삼았다. 이렇게 현재적 관심으로 전통 지식에 접근하는 문제로 인해 특정 시대의 문헌 자체만으로는 연구의 한계가 크기 때문에 그 시간적 거리감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얻기 위해 15세기에서 19세기까지 같은 기준에서 문헌을 선정하여 통시적 흐름을 보았다. 그 결과 비단 공통점만이 아니라 차이점이 무엇인지 양면에 대한 분석 및 향후 관련 연구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본고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전통문헌을 대상으로 제주도 지역의 동물 현황을 정리하고 현재의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동물상(相)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15세기에서 19세기에 이르는 문헌 속에서 제주에서 발견되는 4문 11강 60종의 동물이 기록되어 있었다.

둘째, 15세기에서 19세기까지 공적인 성격이라는 동일한 기준에서 시대별로 대표 문헌을 선정해 통시적으로 그 흐름을 살펴보았다. 조선 전기에서 후기로 갈수록 기록되는 종의 수는 증가하는데 《남환박물》은 가장 많은 48종의 동물을 기록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 후기에 증가된 종의 수는 조류를 상세히 기록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이는 조류에 관한 관심이 점차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셋째, 현재 국내에 없는 앵무조개와 해달, 악어, 미록 등에 관한 기록은 이 종들의 분포에 관한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어서 향후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조선 전기의 문헌으로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이러한 동물들이 있는 반면에 그 뒷시대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의문을 자아낸다. 어떻게 생태 조건이 맞지 않은 상황에서 존재할 수 있었는지, 외국과의 교류에서 선물로 받아 일시적으로 그 시대에만 존재했는지, 당시의 기후조건은 지금과 달라

서 가능했는지 등에 대한 새로운 과제를 제기한다.

넷째, 앞의 새로운 과제와 관련하여, 또 하나의 가능성으로 지금과 같은 용어이지만 다른 의미를 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동시대이지만 공간이 다른 남한과 북한이 낙지와 오징어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듯이, 제주도라는 공간은 같지만 시대적으로 같은 용어를 다르게 사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학사적 관점에서 전통문헌에 대한 연구는 국어사적 관점에서 과학 용어의 면밀한 검토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이 향후 관련 연구에서 염두할 부분임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본고에서 다룬 문헌들은 그간 문학이나 역사, 지리 등 인문사회 관련 연구에서 다루어졌고 과학 관련 연구에서는 논의 대상으로 거의 삼지 않았다. 본고는 인문사회 문헌으로만 인식된 전통문헌을 과학 분야에서 접근해 새롭게 접근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끝으로, 시대는 다르지만 예나 지금이나 주된 관심사가 되는 동물로 고등어, 갈치, 전복, 말 등이 세기의 변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지역특산물로서의 오랜 자리매김을 하는 동물이 제주만의 특성으로서 장기지속하는 측면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에 따른 동물종의 넘나들은 비단 각 세기별 1종씩만 본 본고에서는 다 다룰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본고에서는 관련 연구가 적은 상황에서 큰 밑그림을 그린다는 점에서 세기별로 대표 문헌을 보았지만 향후 시대를 고정하고 각 시대의 제주도 관련 동물을 촘촘하게 엮는 구체적인 연구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이때에는 지리지나 공적 기록이라는 성격 외에도 다양한 성격의 문헌들, 특히 유배지로서 지식인들이 거주하며 기록한 개인적 기록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도 함께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제주읍지』, 규장각 소장본.

강창훈, 양은정, 강성일, 김문홍, 이철호, 박광우, 송관필(2008), 「설문을 통한 제주도의 민속식물 연구」, 『한국자원식물학회 학술심포지엄』, 2008년 4호, 한국자원식물학회.

김선근, 「이조 시대의 진상약재에 대하여」, 『생약학회지』 12호, 한국생약학회(1981).

김정, 『제주풍토록』, 규장각 소장본(1636).

김현준, 정희석, 강신호, 「제주도 지역의 민속식물」, 『한국자원식물학회지』 28권 2호, 한국자원식물학회(2015).

맹사성, 권진, 윤희, 신장 외(1454), 『세종실록지리지』,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1975), 『세종장헌대왕실록』.

박찬식, 「제주계록(濟州啓錄)의 종합적 검토 ; 19세기 제주(濟州) 지역 진상(進上)의 실태」, 『탐라문화』 16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1996).

송관필, 고평열, 좌동열, 신연희, 정희석, 김현준, 현창우, 박찬호, 강신호(2012), 「제주도의 전통지식」, 한국자원식물학회 학술심포지엄, 2012년 5호, 한국자원식물학회.

양영환, 김문홍 「제주도의 귀화식물에 관한 재검토」, 『한국자원식물학회지』 18권 2호, 한국자원식물학회(2005).

양진석(2004), 「18, 19세기 제주의 수취제도와 특징」, 『탐라문화』 24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이강희, 현행복 역(2013), 『탐라지방설』, 도서출판 각(1819).

이육, 18~19세기 제주의 진상제(進上制) 운영과 성격, 탐라문화 32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2008).

이원진, 김상조,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역(1991), 『탐라지』,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1653).

이원진, 김창흡 외 역(2002), 『역주 탐라지』, 푸른역사(1653).

이행, 윤은보, 신공제, 홍언필, 이사균 외(1530), 민족문화추진회 역(1969), 『신증동국여지승람』, 민족문화추진회.

이형상, 이상규, 오창명 역(2009), 『남환박물』, 푸른역사(1704).

장삼미신, 조선후기 제주 進上物 조달과 수송, 탐라문화 23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2003).

제주목, 고창석, 김상옥 역(2012), 『제주계록』, 제주발전연구원(1884).

Tanabe, K., and Hamada, T.(1978), 「Keeping record of a drifted living *Nautilus pompilius* specimen caught off Kagoshima Bay and its significance」, 『Kaiyo Kagaku』 10권, 일본해양학회.

Abstract

Diachronic Study on Animals of Jeju Island in Chosun Dynasty Literatures

focus on 《Se-Jong-Sil-Rok-Ji-Ri-Gi(世宗實錄地理志)》,
《Dong-Guk-Yeo-Ji-Seong-Ram(東國輿地勝覽)》,
《Tam-Ra-Ji(耽羅志)》, 《Nam-Whan-Bak-Mul(南宦博物)》,
《Je-Ju-Gae-Rok(濟州啓錄)》

Jung, Jong-Woo*·Chung, So-Yeon**

In this study, faunistic records of Jeju Island were diachronically investigated using five selected official literatures on Jeju Island published during Chosun Dynasty: Se-Jong-Sil-Rok-Ji-Ri-Gi(世宗實錄地理志), Dong-Guk-Yeo-Ji-Seong-Ram(東國輿地勝覽), Tam-Ra-Ji(耽羅志), Nam-Whan-Bak-Mul(南宦博物), and Je-Ju-Gae-Rok(濟州啓錄).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we made a list of animal species occurred in classical literatures on Jeju Island and arranged them in view of present animal classification system. As a result, sixty-two animal species belonging to ten classes and four phyla had been recorded in the classical literatures studied (15th—19th centuries).

* Lead Author, Department of Science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Department of Korean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cond, number of animal species tends to increase from earlier to later Chosun Dynasty period. And points of view on animals may have had been changed over time. Species that can be directly used for foods had been center of interest in the earlier period while broader range of animal groups including Aves were targets of description in the later period.

Third, special products of Jeju Island nowadays such as abalone, hairtail fish, mackerel, horse were also frequently occurred in literatures since the 15th century, which suggested these products have been continuously popular.

Fourth, species records about nautilus, sea otter, crocodile, and Pere David's deer which do not occur today in Korea, give opportunities to think about whether these species previously occurred in Korea and about which factors had influenced distributional change of them such as climate change, ecological environmental change, and/or international exchange.

Fifth, it is suggested that detailed examination on scientific terms should be accompanied to studies on classical literature in view of natural history based on animal names not used today.

Sixth, this study is given significance by its scientific approach to classical literature which have been usually studied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such as literature, history and geography. Besides this study needs to be escalated to detailed studies as it is the first attempt to examine traditional biological knowledge in Jeju Island from the classical literature.

Key Word : Jeju, animals, mammals, fish, birds, natural history, classical literature, biological knowledge.

교신 : 정소연 03760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chong33@ewha.ac.kr)

논문투고일 2015. 08. 31.

심사완료일 2015. 10. 12.

게재확정일 2015. 10. 17.